

제자리 찾아온 일본 유출 문화재

‘데라우치’ 문고 총 98종 135점 경남대 박물관에 반환

김봉렬

경남대학교 박물관장·사학과 교수

경남대학교가 일본 야마구치(山口)여자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데라우치(寺内) 문고 중 한국관계 국보급 희귀 전적류를 포함하여 총 98종 135점을 야마구치여대로부터 기증받아 경남대 박물관에 영구소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반환된 문고는 94년 4월부터 한일 의원연맹과 한일친선협회가 공동으로 해외에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 환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야마구치여자대학이 국제학술교류 차원에서 이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남대학교에 기증의사를 밝혀 오게 되었고, 이후 반환협상 추진을 위한 경남대학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한일의원연맹 등 양국 관계자들의 협조로 반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결과 95년 11월 11일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과 야마구치여대의 다카야마(高山 治) 학장의 기증각서를 교환하는 조인식 체결을 통해 마침내 지난 1월 24일 본 대학의 인수단에 의해 국내에 반입됐다.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데라우치 문고는 조선 3대 통감 및 초대 조선총독을 거쳐 일본 총리대신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1852~1919)가 한국·중국·일본 등에서 수집한 동양 3국의 고문헌 1만8천여점을 소장한 개인문고로서 데라우치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히사이치(寺内 壽一)가 설립 운영해오다 1946년 야마구치현 소재 야마구치여대에 기증한 것이다. 이 중 한국관계 고전적은 데라우치가 총독재임시 수집한 1,000여종 1,500여점에 이르는 방대한 것으로, 그가 총독퇴임 후 일본으로 가져간 문화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번에 반환된 135점의 문화재는 주로 17~19세기 조선 후기 작품인 간첩(簡帖: 서간 모음)·시첩(詩帖)·서화첩(書畫帖) 종류들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로 보관상태도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작품으로 추사 김정희의 서법(書法)을 추사의 친필로 기록한 《완당법첩조눌인병서(阮堂法帖曹訥人并書)》와 조선조 23대 순조의 세자(뒤에 익종으로 추존)가 9세 때 세자시강원에 입학할 때의 여

이번에 반환된 135점의 문화재는

주로 17~19세기 조선 후기

작품인 간첩·시첩·서화첩들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로

보관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

한국 고전적의 국내 환수는

국외에 유출돼 있는 또다른

문화재 환수의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 후기 역사 문화 연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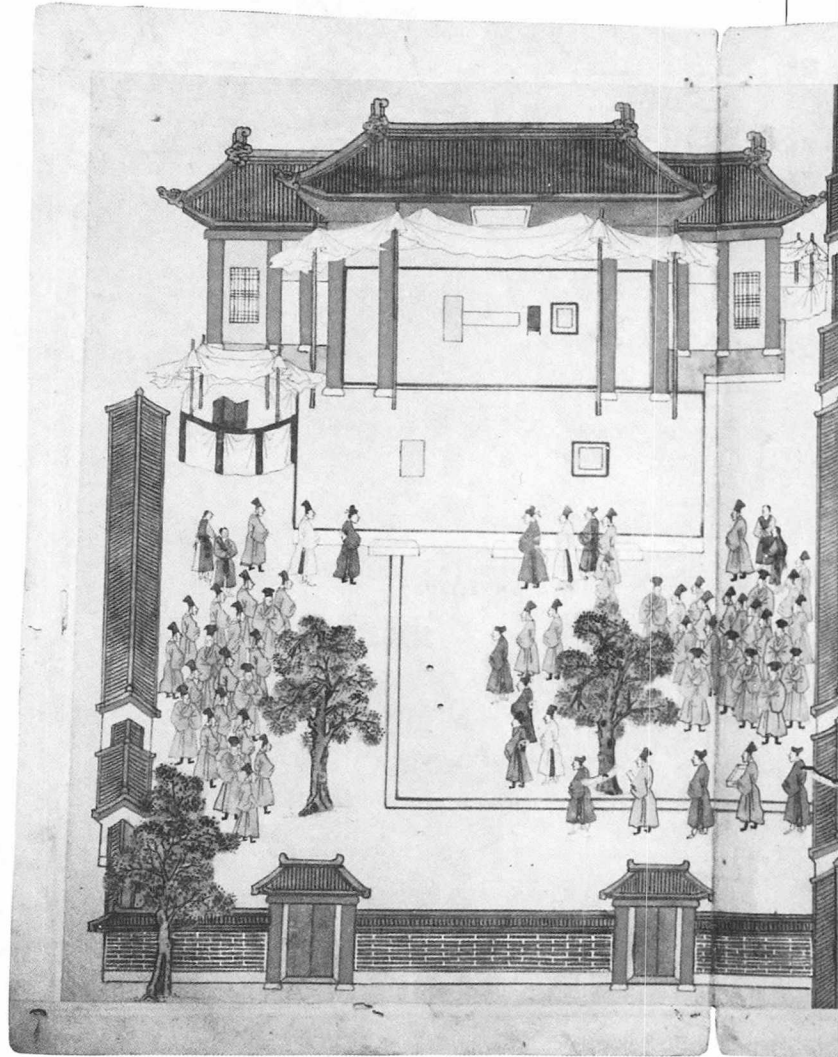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러 의식을 서화로 표현하고 축하시문을 붙인 《정축입학도첩(丁丑入學圖帖)》 등은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조사에서 국보급 문화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사료가 일괄 보물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 있는 사료로 평가됨으로써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첩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며, 작가면에서도 미수 허목·지봉 이수광·동춘당 송준길·백사 이항복·월사 이정구·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명문장가 및 정치가, 학자, 명필들이 망라되어 있어 고전적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 작품으로는 김정희의 《완당법첩조눌인병서》 외에도 16~17세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서애 유성룡·학봉 김성일 등의 서간을 묶은 《근유첩(近儒帖)》과 동춘당 송준길의 서간첩인 《동춘간첩(同春簡帖)》 및 백사 이항복의 《백사수적(白沙手蹟)》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시첩류 가운데는 조정의 고관들이 왕실 연회 또는 지방관으로의 전보 및 외국으로의 사행 때 지은 시작품을 모아 놓은 《무진조천별장첩(戊辰朝天別章帖)》·《정해부언별장첩(丁亥赴燕別章帖)》·《사찬첩(賜饌帖)》 등 사료가치가 높은 작품이 다수 있다. 《무진조천별장첩》은 인조 6년(1628) 명나라 의종 즉위식에 사신으로 간 진하부사 민성휘에게 당대의 문인 명필들인 신희·이수광·이정구 등이 직접 지어준 송별시첩이며, 《정해부언첩》은 인조 25년(1647) 사



순조의 왕세자가 9세 때 세자시강원에 입학할 때의 의식을 표현한 《정축입학도첩》.

은부사 민성휘의 북경사행시 김상헌·김수현 등 문인들이 써서 준 송별시첩이고, 《사찬첩》은 국왕의 경연에 참여한 대신들에게 영조가 하사한 영조어필(英祖御筆)의 시와 함께 신하들이 지은 시를 모은 시첩으로 모두 귀중한 자료들이다.

보물급 가치 뛰어난 작품 많아

서화류로는 《정축입학도첩》 외에도 18~19세기의 화가 김홍도·석양정·송민고 등의 화집인 《홍운당첩(烘雲堂帖)》이 있으며, 영조 36년 왕명에 의해 입시(入侍)한 24인이 직접 지은 시첩과 함께 입시한 고관들의 모습을 그린 채색도가 붙은 《제신제진(諸臣製進)》 등 보물급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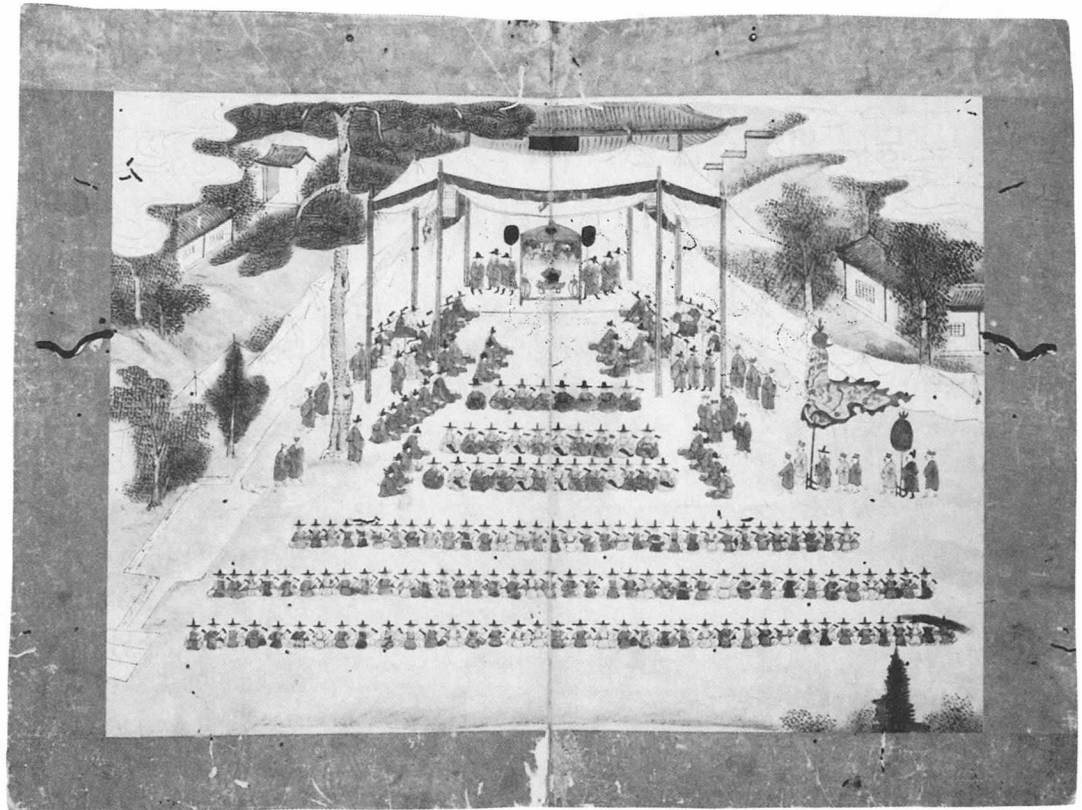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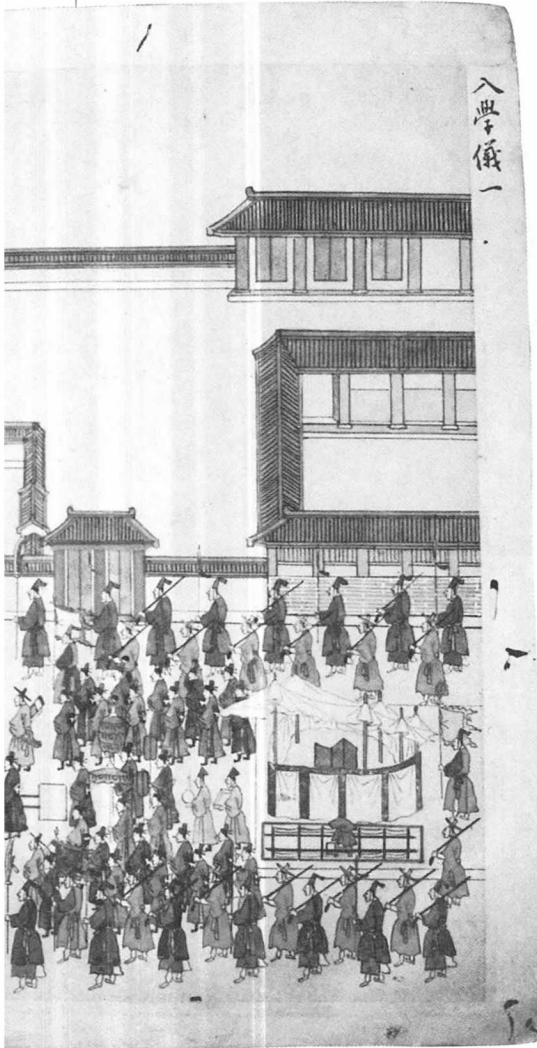
이외에도 유산상속을 기록한 분재기(分財記)로 1641년 작성된 《신사시월일 동생화회문기(辛巳十月日 同生和會文記)》는 아들

이 없는 박씨가 제사를 모신다는 조건하에 그 외손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회회문기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문서이다.

이번 한국 고전적의 국내 환수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외(특히 일본)에 많이 유출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이를 통한 국제간의 학문적 문화적 교류, 나아가 국가간의 관계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일본측은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재나 한국관계 고문서의 반환에 공식적으로 반대여사를 분명히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학계나 민간기구 등을 통해 기증의사를 표시하는 등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야마구치여대측은 자신들이 소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에 이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기증, 앞



영조 때 입시한 고관들의 모습을 그린 채색도 <제신제진>.



김홍도·석양정·송민고 등의 화집 <홍운당첩>.

으로 한일 양국간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는 물론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

다음으로, 우수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보물급 작품들을 다시 찾아오게 됨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이 좀더 풍성해졌음은 물론 반환된 고전적을 전시, 민족문화에 대한 애호심을 제고하고, 해외에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 환수운동을 국민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다수의 17~19세기의 고전적 반입으로 조선 후기 역사·문화 전반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번 고전적이 지방의 사립대학에

소장되게 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지방문화의 육성과 학문적 발전의 기여라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고전적의 자료와 문화재의 전시가 중앙에 집중되어, 지방의 경우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활용이나 일반인들의 문화유산 접촉 기회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고전적의 반입은 지방문화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다.

반입된 고전적의 활용 또한 환수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전적의 체계별 분류를 통한 기초작업이 선행된 후 내용의 정밀 분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내용의 정밀분석은 사료적 가치가 높고 그 분량이 방대한 만큼 문헌사학·한문학·서지학 등 관련학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일본학자들과의 공동연구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반입된 고전적 이외에도 야마구치여대의 테라우치 문고에는 한국관계의 귀중한 자료가 다량 소장되어 있다. 그곳 관계 학자들과 공동 연구작업을 통한 사료 발굴 및 학문적 교류와 함께 2차 3차의 문화재 환수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